

색채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 비교

이진영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목차

- I. 서론
- II.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 등장
- III. 오렌지혁명과 장미혁명 이후의 시민사회
 - 1. 오렌지혁명
 - 2.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시민사회
 - 3. 장미혁명
 - 4. 혁명 이후 조지아 시민사회
- IV.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 비교
- V. 결론

I. 서론

시민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라 함은 신분적 구분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봉건사회에 대립개념으로 자유, 평등, 독립이 보장된 사회이다. Between Tsar and people에서 Edith Clowes와 Samuel Kassow 그리고 James West는 시민사회를 교육 받은 개인들, 자발적 결사체, 전문적인 사회, 대학, 그리고 국가와 가족 간의 중간의 일치성을 형성하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¹⁾

이 시민사회의 기원은 유럽에서 찾을 수가 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구분이 형성 되었다. ²⁾ 1750년에서 1850년에 시민사회라는 것은 평화로운 정치 질서가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사회는 정부와는 대조를 이루었는데 이는 시장 교환과 자선 단체, 자발적 결사체, 독립적인 교회와 출판사와 같은 사회생활의 영역을 의미 했다.³⁾

1) Edith Clowes, Samuel Kassow, and James West, 1991, Between Tsar and Peopl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6.

2) Keane, J, 1998, Civil Society: Old imags, new vision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3) John Keane, 2009, Civil Society, Definitions and Approaches: The University of Westminster, W1t 3uw, London, UK.

이러한 모습은 현재의 시민사회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가 하는 역할과는 구별되는 행동을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 소외된 계층의 권익 대변, 여성의 권익 운동 등과 같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민주주의 이행, 빈곤퇴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한다. 결국 시민사회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은 국가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선결조건이며 또한 시민사회는 시민들인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가의 책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⁴⁾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폴란드, 체코슬라비아,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이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전제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⁵⁾민주주의가 시민사회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필요충분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전제주의 체제에서는 시민들의 의사와 이익 추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다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은 분명하며 수평적인 구조 즉 거버넌스가 형성되기는 힘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수 혹은 한명의 리더가 좌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참여적인 사회는 국가가 행정능력을 보유 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시민 사회가 국가로부터의 책무성을 확실하게 하는 제도화된 능력을 가진다.⁶⁾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공존하고 대중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정치 참여를 함으로써 국가 일방의 독단적인 행보를 저지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로버트 푸트남이 “약한 시민사회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다.”⁷⁾ 라고 주장했듯이 이 주장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강한 시민사회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신뢰가 강하다.” 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조지아에서는 2003년 장미 혁명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1년 후인 2004년에 오렌지 혁명이 발생했다. 시민사회는 대중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강한 시민사회일수록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양 국가의 색채혁명은 민주주의 이행의 혁명이라고 해석 될 수 있으며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졌는지 또한 양 국가는 비슷한 시기에 색채혁명이 발발 하였는데 그들의 시민사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를 비교함에 있어 Civicus가 개발한 Civicus Civil Society Index(CSI)를 사용한다. Civicus에서 정의하는 시민사회란 가족, 국가, 시장의 바깥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한 영역⁸⁾ 즉 시민사회 영역을 핵심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조직적인 측면이 아닌 시민사회의 시민들이 주요한 행위자로서 인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CSI는 2003년에서 혁명이 발생한 2004년의 기간 동안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조지아의 경우 혁명이 발생한 2003년에서 2005년에 조사된 자료로 작성이 되었다. 이 지표는 시민사회를 구조, 환경, 가치, 영향 등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각 국의 시민사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각 영역의 점수는 주요 통계, 설문 등의 경험적 자료를 두루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CIVICUS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저 0점부터 최고 3점으로 되어있다. 각 영역이 나타내고

4) Kristina Joy Satern, 2011, Ukraine`s civil society development past and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19th and 21st century volutary association in Kiev.

5) John Keane, 2009, Civil Society, Definitions and Approaches: The University of Westminster, W1t 3uw, London, UK.

6) Laverty, Nicklaus, 2008, The problem of lasting change: Civil society and the clored revolutions in Georgia and Ukraine: Demokratizatsitya 16, no.2.

7) Robert Putnam, 1995, Blow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8) Salamon, L. Sokolowski, W. and List, R, 2004, Global Civil Society: An overview in Salamon et al, Global Civil Society.

있는 것을 자세히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영역의 경우 시민사회의 인프라, 단체의 분포, 시민참여, 내부 의사 결정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둘째, 환경 영역은 각국의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 기본권적 자유, 사회경제적 환경, 법률적 환경, 국가와 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셋째, 가치 영역은 각국의 시민사회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위 요소로는 민주주의, 투명성, 관용, 비폭력, 양성평등, 빈곤퇴치, 환경보호로 구성 되어있다.

마지막 영역인 영향의 경우는 각국의 시민사회가 여러 주요한 기능들을 활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감시, 사회적 이익에 대한 대응, 사회적 욕구의 충족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Civicus는 시민사회를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제시했으며 본 논문은 CSI를 바탕으로 양 국의 시민사회를 비교하기로 한다.

II.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 등장

우크라이나에서 시민사회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안토니나 콜로디(Antonina Kolodii)는 현대의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는 몇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4개의 시민사회 타임을 구성했고 교육받은 시민사회(educated civil society)를 우크라이나에 적용 시켰다. 이 교육받은 시민사회는 국경지대에 있는 국가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이 유형이고 이것은 지적인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그녀는 봉건주의 시기의 우크라이나를 고려할 수 있는 4개의 기준을 설립했다. 즉 이 시기의 시민사회는 우크라이나 초기의 시민사회이다. 자주적 조직결성, 관습법,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독립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지역적 차이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치하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시작 되었고 그녀는 현재의 동 우크라이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와 그리고 1848년 혁명 이후에는 정치와 사회 발전이 갈라치아와 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다. 19세기 말까지 서 우크라이나는 시민사회가 발전했고 이는 정치 정당과 우크라이나 국민사회가 형성되었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잠재적인 형성이 러시아 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 지역에서는 초기의 시민사회 조직들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 되었다.⁹⁾

19세기 후반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민 의식이 형성은 규모 토론 단체의 설립을 통해서 제한된 시민사회를 형성 했다. 이 단체는 국가의 문제나 우크라이나인들과 언어의 상황에 대해서 주로 토의를 했다. 반면 이 단체는 지식인들로만 이루어졌고 대중들을 대표하지는 않았다. 비록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갈등이 대부분의 단체들의 영향력을 감소시켰지만, 20세기 초에 이 단체는 대중들 앞에서 우크라이나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 주장했다.¹⁰⁾

갈라치아에서는 그리스 가톨릭 보수주의에 의해서 국민의식의 형성이 더디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코삭크(Cossack) 유산 때문에 그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억압적인 러시아 치하에서 갈라치아보다는 더 향상된 국민의식의 형성이 이루어졌다.

소비에트시기에는 특정 정도의 수평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9) Antonina Kolodii, 2002, Na shliakhu do hromadians 'koho suspil'stva,

10) subterny, 1988, Ukraine: A History,

난 후에 완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에트시기의 수평 운동에도 불구하고 동과 서의 우크라이나의 차이는 확연했다. 왜냐하면 서 우크라이나는 오직 세계 제2차대전 이후에만 소비에트에 합병되었고 동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의 초기에서부터 합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 형성이 초기에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동과 서의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 우크라이나는 시민사회 발전이 더딘 반면 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초기부터 미미하게나마 형성되고 동 우크라이나 보다는 빠르게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지아의 시민사회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는 트빌리시에 있는 아티산(Artisan)과 상인들의 길드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이러한 형태의 단체는 19세기에 공공 참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조지아인들은 조지아로 돌아왔고 자유주의를 전파했다. 이때는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인쇄 매체가 등장하여 공공의 이슈들을 토론하는 포럼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을 최초의 시민사회단체들(Civil Society Organization)이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1918년에서 1921년 조지아 공화국이 독립한 짧은 시기에 초기의 시민사회 발전은 막바지를 향했다. 하지만 소련이 조지아를 침공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가 조지아에 자리 잡게 되었고 전체주의 정치 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공공 영역에 참여와 발전은 저지당했다. 이 시기에는 소수의 자발적 단체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기능이 그리 크지는 않았고 대부분은 시민사회단체의 아류가 나왔으며 그들의 기능은 자발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않았다. 소련 체제의 마지막 시기 1968년에서 1980년에는 반체제 운동이 발발했는데 동유럽에서는 이를 시민사회라 간주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는 반체제 운동은 강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단체가 국가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등장했고 작게나마 자유주의 이념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유사한 시민 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¹¹⁾

III. 오렌지 혁명과 장미혁명 이후의 시민사회

1. 오렌지 혁명

2004년 11월-12월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렌지 혁명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동년 10월 31일에 대선이 실시되었다. 선거의 결과는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40.12%를 얻었고 빅토르 유셴코는 39.15%를 얻었다. 하지만 야누코비치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11월 21일에 실시된 2차 투표에서는 역시 야누코비치가 49.53%로 4.66%를 차지한 유셴코를 이겼다고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고 우크라이나 최고 재판소는 유권자들의 투표와 예비 집계 과정 중에 이러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의 선거 결과에 대한 발표를 취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차 투표를 다시 거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으로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저지했으며 최고 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대통령 선거 결선 재투표 진행을 성사시켰다. 재투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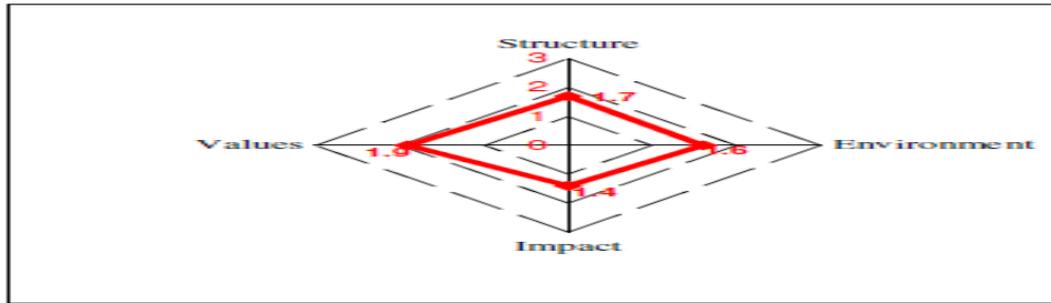
11) Ghia Nodia, 2005, Civil Society development in Georgi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빅토르 유셴코는 승리를 하여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다.

이 오렌지 혁명은 서부와 중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를 장악했다. 빅토르 유셴코는 서부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2.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시민사회

12) Figure 1. 2003-2004년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 다이몬드 모형



상기 Figure1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는 중간정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균형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2004년 오렌지 혁명의 성공을 고려해보면 4개의 요소 중에서 영향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덜 발달되었다. 공공 정책 분야에서 시민 사회의 행동들이 사회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렌지 혁명은 정책결정 분야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했다. 영향의 낮은 점수는 시민사회를 덜 지지하는 환경의 평균적 점수와 연결 된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부패가 만연하고, 법치를 경시하고, 후견주의와 정부에 대한 무관심, 불신 그리고 편협함이 있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 일반적인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관행을 강하게 형성한다. 이것은 결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관습을 옹호한다. 단체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시민사회에 의해서 제시된 제의들을 정부가 무시하게 이끌기 때문이다.

1) 영향

우크라이나 시민사회 지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향 영역은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감시, 사회적 이익에 대한 대응,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적 욕구의 충족으로 구성된 영역이다.

영향의 하위 영역은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감시, 사회적 이익에 대한 대응, 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적 욕구의 충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Svitlana Kuts, 2006, Civil Society in Ukraine: Driving Engine or spare wheel for change?

표1.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지표: 영향¹³⁾

영역	하위영역	항목
영향 1.4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2	인권 영향 3 사회정치 영향 2 국가예산 과정 영향 1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감시 1.0	국가 책무성 감시 2 기업의 책무성 감시 0
	사회적 이익에 대한 대응 0.5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한 대응 2 CSO에 대한 공적 신뢰도 0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2	정보제공과 시민교육 2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의 역량 구축 2 사회적 약자의 자치역량 강화 2 여성의 자치역량 강화 2 사회자본의 형성 3 생계의 지원 및 창출 1
	사회적 욕구의 충족 1.3	공공 서비스에 대한 로비 2 사회적 욕구의 직접적 충족 활동 1 사회적 약자의 욕구충족 활동 1

상기 표1을 보면 영향의 영역은 네 가지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인 1.4점을 획득했다. 영역의 각각의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과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가 각각 2점을 획득했다. 하지만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의 항목 중에서 국가예산 과정에 대한 영향은 1점으로서 다른 두 개의 항목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의 항목들에서는 생계의 지원 및 창출이 1점을 획득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자본의 형성은 3점을 획득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사회적 이익에 대한 대응은 0.5점으로 영향의 하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 중에서 CSO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0점이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CSO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가치

가치는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1.9점을 획득했다. 가치는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가 실천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말해준다.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가치들은 중간정도라고 볼 수 있다.

13) 표1부터 표6까지는 Civicus Civil Society Index를 바탕으로 작성.

표2.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지표: 가치

영역	하위영역	항목
가치 1.9	민주주의 1.5	CSO 내부의 민주주의 실천 1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증진활동 2
	투명성 1.3	시민사회 내부의 부패 1 CSO 재정적 투명성 1 시민사회의 투명사회 추진 활동 2
	관용 2	시민사회 내부의 관용 2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용 증진 활동 2
	비폭력 2	시민사회 내부의 비폭력 2 시민사회의 비폭력 증진 활동 2
	양성평등 2.5	시민사회 내부의 양성평등 3 CSO 내부의 양성평등 실천 N/A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증진 활동 2
	빈곤퇴치 1	시민사회의 빈곤퇴치 증진 활동 1
	환경보호 3	시민사회의 지속가능 환경 활동 3

가치의 하위 항목 중에서 환경보호는 3점을 획득하면서 다른 하위 항목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평등 즉 젠더 문제 또한 2.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관용과 비폭력 또한 각각 2점을 획득하면서 취약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경우 각각 1.3과 1.5를 획득하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적인 내부 구조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낮은 점수인 빈곤퇴치는 1점을 획득했는데 가치의 하위 영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시민들이 시민사회 단체에 참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며 더욱 우크라이나 시민사회 형성에 장애가 될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장미혁명

조지아에서는 구소련 붕괴 후에 첫 번째 민주선거로 선출된 감사후르디아 대통령이 아르메니아로 도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는데 이는 감사후르디아의 권위주의적 정치와 대외정책의 실패의 결과이다. 감사후르디아 이후에 등장한 세바르드나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권을 잡게 된다.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외정책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민주주의를 국내정치의 중심 틀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체제전환기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그의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닌 유사 민주주의의 형태로 나아갔다. 이러한 유사 민주주의 형태는 조지아 국민들의 생활을 힘겹게 했다. 더 나아가 초기 민주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그의 선언과는 달리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경제는 더욱 정체되었다. 2000년 그는 재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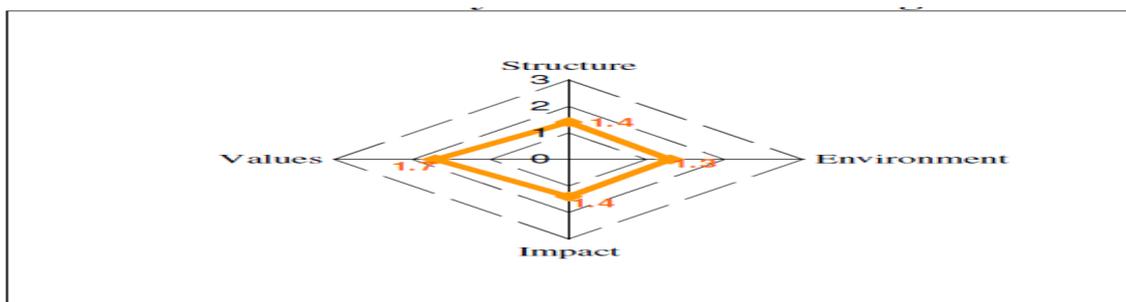
했고 조지아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더 쌓여만 갔다. 당시 법무장관인 사카쉬빌리와 국회의장인 쥘바니아는 차기정권을 위해서 세바르드나제를 떠났다.

2003년 11월 3일, 조지아 선관위는 집권당의 승리를 발표하게 되고 야당 측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부터 혁명은 시작된다. 계속해서 세바르드나제에게 불만을 가졌던 대중들은 야당 측에 가세하여 시위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바르드나제는 사임을 하고 2004년 1월 4일 사카쉬빌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조지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4. 혁명 이후 조지아 시민사회

장미혁명 이후 조지아의 시민사회 형태는 아래 Figure2를 보듯이 가치가 제일 높고 환경이 제일 낮다. 구조의 경우에는 영향과 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조지아의 시민사회 발전은 외국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시민사회 참여자들 사이에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조지아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거의 외딴 지역에 존재하지만 시민사회 행위자들 사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수년간 외국의 후원자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조직적인 발전은 더디다. 오로지 소수의 시민사회 단체들만이 상부 단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수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엘리트들만이 코카서스 지역 밖의 국제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14)Figure2. 2005년 조지아의 시민사회 다이아몬드 모형



1) 환경

조지아의 시민사회지표에서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환경 영역은 조지아 내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적 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조지아 시민사회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을 보면 환경의 하위영역에서 가장 낮은 부분은 0.8을 획득한 정치적 환경이다. 조지아 시민사회 환경의 취약성은 조지아가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고려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당의 내부적인 민주주의가 낮으며 제도화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치의 더딘 발전과 상당한 부패, 국가의 비효율성과 분권화의 후진성 때문이다.

결국 조지아 시민사회 환경 영역의 취약성은 사회적 관용의 낮은 단계와 시민사회와 민간 부

14) Ghina Nodia, 2005, Civicus Civil Society Index Shortened Assessment Tool Report For Georgia.

문의 연계가 부족 하는 것을 초래한다. 정치적 환경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사회경제적 환경의 경우는 2점으로 기록되었고 타 영역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2) 가치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가치 영역이다. 표4를 보면 조지아의 가치 영역은 1.7점을 획득했으며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근소하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가치의 하위영역을 자세히 본다면 환경보호, 관용, 비폭력이 각각 2점을 획득하면서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탈물질적인 요소인 환경보호와 관용이 조지아의 시민사회 단체가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빈곤퇴치와 같은 물질적 가치는 낮게 평가 되고 있는데 조지아의 CSO 내에서 빈곤퇴치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투명성과 양성평등은 각각 1.7점을 기록했고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CSO 재정적 투명성은 투명성의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항목 중에서 CSO 내부의 양성평등이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 부분의 영역이 개선되어야 결국에는 가치 영역이 높게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3. 조지아의 시민사회지표: 환경

영역	하위영역	항목
환경 1.3	정치적 환경 0.8	정치적 권리 1 정치적 경쟁 1 법치 1 부정부패 0 국가 효과성 1 지방분권화 1
	기본권적 자유 1	시민 자유 1 정보 권리 1 언론 자유 1
	사회경제적 환경 2	사회경제적 환경 2
	사회문화적 환경 1	관용 1
	법률적 환경 1.5	CSO 등록 2 CSO의 정부 비판의 자유 1 면세 혜택 1 기부금 세제 혜택 2
	국가와 CSO 관계 1.7	CSO 자율성 2 국가와 CSO 사이의 대화 2 국가의 CSO 지원 1
	시장과 CSO 관계 1	시민사회에 대한 시장의 태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기부와 공헌활동 1

표4. 조지아의 시민사회지표: 가치

영역	하위영역	항목
가치 1.9	민주주의 1.5	CSO 내부의 민주주의 실천 1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증진활동 2
	투명성 1.7	시민사회 내부의 부패 2 CSO 재정적 투명성 1 시민사회의 투명사회 추진 활동 2
	관용 2	시민사회 내부의 관용 2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용 증진 활동 2
	비폭력 2	시민사회 내부의 비폭력 2 시민사회의 비폭력 증진 활동 2
	양성평등 1.7	시민사회 내부의 양성평등 2 CSO 내부의 양성평등 실천 1 시민사회의 양성평등 증진 활동 2
	빈곤퇴치 1	시민사회의 빈곤퇴치 증진 활동 1
	환경보호 2	시민사회의 지속가능 환경 활동 2

IV.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의 비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시민사회 지표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영역은 가치 영역이다. 우크라이나의 가치는 1.9점이고 조지아의 가치는 1.7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 표를 본다면 가치 영역의 하위영역에서 민주주의, 관용, 비폭력, 그리고 빈곤퇴치가 같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차이를 나타내는 하위영역은 투명성, 양성평등, 그리고 환경보호이다. 우크라이나의 투명성은 조지아의 투명성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내부의 부패 항목이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양성평등은 2.5점인데 비해 조지아의 양성평등은 1.7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영역의 항목에서도 시민사회 내부의 양성평등이 1점이 차이가 나고 있다. 환경보호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는 3점을 기록했지만 조지아는 2점을 기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지표가 가치라는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영역은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영향 영역이 1.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조지아의 경우 환경 영역이 1.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조지아의 영향 영역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1.4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하위 영역과 항목들을 아래 표를 본다면 미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점을 기록하고 있고 중간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의 경우 1.3점으로 취약한 부분이다. 두 국가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3가지 항목 모두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하위 영역은 사회적 이익에 대한 대응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0.5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조지아의 경우 이보다 1점 더 높은 1.5점을 기록하고 있어 중간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CSO에 대한 공적 신뢰도 부분이다. 우크라이나는 최저점인 0점을 기록하여 우크라이나 사회내에서 CSO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지아의 경우 1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보다는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하위 영역에서 점수는 같지만 항목별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모두 영향 영역은 세부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표5. 조지아의 시민사회지표: 영향

영역	하위영역	항목
영향 1.4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 1.3	인권 영향 2 사회정치 영향 1 국가예산 과정 영향 1
	국가와 시장의 책무성 감시 1.5	국가 책무성 감시 2 기업의 책무성 감시 1
	사회적 이익에 대한 대응 1.5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한 대응 2 CSO에 대한 공적 신뢰도 1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1.5	정보제공과 시민교육 2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의 역량 구축 1 사회적 약자의 자치역량 강화 1 여성의 자치역량 강화 2 사회자본의 형성 2 생계의 지원 및 창출 1
	사회적 욕구의 충족 1.3	공공 서비스에 대한 로비 1 사회적 욕구의 직접적 충족 활동 1 사회적 약자의 욕구충족 활동 2

조지아의 시민사회지표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 영역은 환경이다. 1.3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환경은 이보다 0.3점 높은 1.6점을 기록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우크라이나 환경의 하위영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이다. 이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2점을 기록하여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조지아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가 환경적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하위영역은 정치적 환경인데 비록 부정부패 항목이 양 국가 모두 0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법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2점을 기록하고 있어 1점을 기록하고 있는 조지아 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우크라이나의 시민사회지표: 환경

영역	하위영역	항목
환경 1.6	정치적 환경 1.5	정치적 권리 2 정치적 경쟁 2 법치 1 부정부패 0 국가 효과성 2 지방분권화 2
	기본권적 자유 1	시민 자유 1 정보 권리 1 언론 자유 1
	사회경제적 환경 2	사회경제적 환경 2
	사회문화적 환경 1.7	관용 1 신뢰 2 공공정신 2
	법률적 환경 1.7	CSO 등록 2 권익주창 활동 1 면세 혜택 2 기부금 세제 혜택 2
	국가와 CSO 관계 1.7	CSO 자율성 2 국가와 CSO 사이의 대화 1 국가의 CSO 지원 2
	시장과 CSO 관계 1.3	시민사회에 대한 시장의 태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기부와 공헌활동 2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구조 영역은 아래 표7을 보면 구조 영역은 시민사회의 시민참여, 자원 네트워크, CSO의 분포 등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1.7점, 조지아는 1.4점으로 우크라이나가 조지아보다 구조 영역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 국가 모두 시민사회 구조가 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시민참여의 다양성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지아의 경우 시민참여의 넓이가 가장 열악한 하위영역으로 되어 있다. 비정파적 정치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0점을 받고 있어 조지아의 시민사회 구조는 시민참여의 넓이가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 국가 모두 재정적 자원이 1점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인적 자원과 기술, 인프라 자원이 2점으로 이러한 이점을 살린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속 가능성을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표7.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지표: 구조¹⁵⁾

영역	하위영역	항목
구조 1.7, 1.4	시민참여의 넓이 1.4, 0.5	비정파적 정치활동 2, 2 자선적 기부 2, 0 CSO 멤버십 0, 0 자원봉사활동 2, 0 지역사회활동 1. X
	시민사회 참여자의 다양성 2.7, 1.7	CSO내 회원 중 사회집단의 대표성 2, 2 CSO 리더 중 사회집단의 대표성 3, 1 CSO의 전국적 분포 3, 2
	조직의 수준 1.4, 1.2	엠블레라 조직의 존재 1, 0 엠블레라 조직의 효과성 2, 2 시민사회 내부의 자율 규제 2, 2 시민사회 지지 인프라 1, 2 국제적 연계 활동 1, 0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1.5, 2	시민사회 행위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2, 2 시민사회 행위자 사이의 공조활동 1, 2
	자원 1.7, 1.7	재정적 자원 1, 1 인적 자원 2, 2 기술, 인프라 자원 2, 2

V. 결론

2003년 장미 혁명이 발발하고 1년 후인 2004년 오렌지 혁명이 발발했다. 시기적으로 1년 먼저 색채혁명이 발생한 조지아는 시민사회지표의 네 영역의 평균 점수가 1.45로 우크라이나의 1.65보다는 근소하게 낮게 평가되었다. 조지아가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지표의 취약한 영역은 환경이었으며 특히 정치적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환경 영역은 조지아 보다는 높게 평가 되었지만 하위영역 중에서 기본권적 자유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 국가 모두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네 영역 중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가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 국가 모두 빈곤퇴치에 대해서는 취약성을 나타내는데 빈곤이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며 인식의 부재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앞으로 양 국가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15) 점수 분포-좌: 우크라이나, 우: 조지아.

만약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관성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사회는 더욱 더 효과적으로 국가 정책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좋은 시민사회란 국가의 힘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발전 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¹⁷⁾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시민사회가 더욱 성숙하게 성장 하려면 국가와 협력하여 양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취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6) Thomas Carothers, 1999, Civil Society.

17) Ibid.

참고문헌

- Edith Clowes, Samuel Kassow, and James West, 1991, *Between Tsar and Peopl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6.
- Keane, J, 1998, *Civil Society: Old imags, new vision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hn Keane, 2009, *Civil Society, Definitions and Approaches: The University of Westminster, W1t 3uw, London, UK.*
- Kristina Joy Satern, 2011, *Ukraine`s civil society development past and present: a c comparative analysis of 19th and 21st century volutary association in Kiev.*
- Laverty, Nicklaus, 2008, *The problem of lasting change: Civil society and the colored revolutions in Georgia and Ukraine: Demokratizatsitya 16, no.2.*
- Robert Putnam, 1995, *Blow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 Salamon, L. Sokolowski, W. and List, R, 2004, *Global Civil Society: An overview in Salamon et al, Global Civil Society.*
- Ghia Nodia, 2005, *Civil Society development in Georgi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 Antonina Kolodii, 2002, *Na shliakhu do hromadians 'koho suspil'stva, subterny, 1988, Ukraine: A History,*
- Svitlana Kuts, 2006, *Civil Society in Ukraine: Driving Engine or spare wheel for change?: Civicus Civil Society Index*
- Ghina Nodia, 2005, *An Assessment of Georgian Civil Society, Civicus Civil Society Index.*
- Thomas Carothers, 1999, *Civil Society.*

